

의대 교수들 사직 결의...전남대·조선대 움직임 주목

서울대·울산대 집단사직 의결...조선대 의대평의회 집단행동 예고 현실화 땀 광주·전남 의료붕괴 우려...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 검토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22일째 접어들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마저 집단사직하면 광주·전남 의료붕괴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평의회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최근 울산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전국적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단 각 대학별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전국 의대교수들의 대응은 비슷할 것이라는 게 교수들의 설명이다.

전국대의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적극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수들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면허정지를 무기로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회의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집단사직을 하겠다고 의결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평의회(평의회)도 지난 8일 성명서에서 이미 집단행동을 예고해둔 상태다.

평의회는 "젊은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현상 황과 그에 대한 강경한 처벌만을 언급하며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경직된 대응으로 생긴 극한의 갈등과 의료현장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평의회는 이어 "의학교육은 강의실과 실험실 공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그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에 맞춰 대학별 배정되는 학생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의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준비와 투자가 필요할지 쉬 가능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의회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집단행동을 시사했다.

조선대의대와 전남대의대 교수를 포함한 전국의 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소송 적격 등의 논란이 있어 집단 소송 원고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 의과대학 교수들의 소송 참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대학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빅5' 병원과 연계된 의과대학을 포함 16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



병원 접수창구 북적 연일 계속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12일 광주의 한 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접수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원들이 12일 저녁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 등을 이어가며 강경대응 기조를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날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할 경우 진료유지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한다" 말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홀로 아이 키우던 엄마, 두 아들과 극단적 선택 시도

순천시... 남편 사별 후 힘든 생활 모자는 무사... 둘째아들은 위독

남편과 사별 후 가계를 꾸려오던 30대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순천경찰과 순천소방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순천시 모 아파트에서 집안에 번개탄을 피운 A(여·39)씨와 아들 B(17), C(12)군을 구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C군은 의식을 잃어 위독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고 함께 가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약봉지를 확보해 성분과 처방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자녀들이 약물을 복용한 경위를 살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남편과 사별한 뒤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근로능력 없음 판단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홀로 가정을 이끌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은 한부모 가정이라는

점이 반영돼 생계비, 생활지원금, 아동양육비 등 한달 167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고 A씨가 최근 부채·보이스피싱 등 사건사고에 연루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있었는데 이전까지 특이사항이 보고된 바는 없었다"며 "정신건강 상담 센터와 연계하거나 통장과 논의해 접촉을 늘리는 등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의사가 병원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 의혹

광주광산경찰, 수사 나서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의사가 불법 촬영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산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시 광산구 한 종합

병원의 여성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의실을 이용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신생아 야산 생매장 친모 2심도 징역 3년6월

6년 전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목포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생후 3일 된 아들을 광양의 친정

집 인근 야산 땅속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출생 신고 전이라서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아이를 산 채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가 암매장한 곳이라고 지목한 광양시 한 야산 일대에서 발굴 수색을 벌였으나, 피해자 시신

은 찾지 못했다.

A씨는 홀로 출산한 후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A씨가 원치 않은 출산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양 등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2명의 자녀가 있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순 육가공 공장 작업자 기계에 끼여 숨져

홀로 설비 안서 작업하다 참변

화순 육가공 공장에서 설비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12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께 화순군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돼지털 제거 설비를 수리하던 60대 직원 A씨가 기계에 끼였다.

A씨는 안면과 가슴부위, 다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구급됐지만 이튿날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설비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작업 도중 갑자기 전원이 켜지면서 돼지털 운반용 설비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홀로 설비 안에서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한 명은 밖에서 기계를 켜고 끄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설비장치에 전원이 공급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